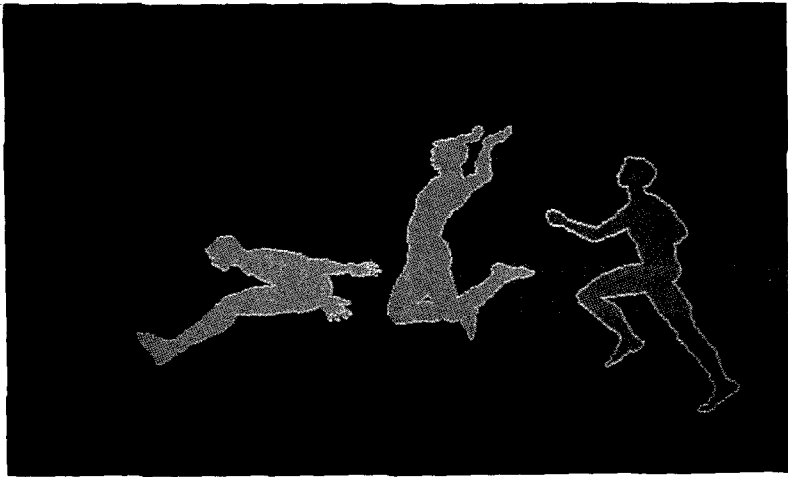


21세기 우리 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



- ① 국내 산업의 현주소
- ② 세계 경제환경과 발전전략
- ③ 선진국 대비 국내산업 수준
- ④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국내 산업의 현주소

우리 산업의 전반적 상황

국내 산업은 60년대 초반 정부주도로 산업화를 시작하여 국제분업구조 변화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도 성장에 이르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국내 산업의 특성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섬유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고 그후 70년대 접어들어 중반이후에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정부의 산업육성에 힘입어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와 지식정보혁명의 물결에 다소 늦은 대응을 하고 있어 양적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경우 생산규모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전자는 세계 4위, 자동차·석유화학은 5, 6위를 다투고 있어 그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지만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의 과잉투자로 인해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고 노동력 위주의 경공업은 동남아국가를 위시한 후발개도국들의 약진으로 경쟁력이 자꾸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가들과의 지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이행은 부진

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과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후진 개도국과의 사이에 낀 '넛 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 기술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내실 있는 질적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산업조직 부문

60년대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실시로 말미암아 대기업 집단에 국내 경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체들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하액은 47%, 수출은 4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조립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이 취약하고 인력이나 자본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작년 발발했던 외환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외부차입에 의한 차입·외형위주의 사업확장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97년을 기준으로 519%에 이른다.

〈국내 제조업중 대기업의 비중(%, 96년기준)〉

	출 하 액	부가가치	고 용	자 산
1~4대 기업	27.4	22	8.4	29.2
1~30대 기업	46.4	36.6	13.8	52.5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치로 외국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통화환경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년 대기업의 부도에서 보여주듯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미흡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작년을 계기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오너 중심의 독단적인 기업경영 형태는 여전히 하다.

성장원천부문

국내 산업의 성장요소는 주로 노동이나 자본 등 투입요소의 확대에 의지하는 양적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산업인 경공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대규모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저효율 구조로 인해 국내 전체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5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부각되는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수준 또한 62%, 52%에 불과하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주로 노동이나 자본에 의지한 양적 성장에 기초한 결과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력 취약이 유발되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경제가 점차 나아짐에 따라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나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 또한 국내산업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높은 금리수준과 과다한 차입의존경으로 경쟁국에 비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우리 산업의 문제점

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면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첫번째로는 국내 산업은 대규모의 장치산업위주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물량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수출환경변화 적응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그 예로 90~97년 중 수출물량은 2.7배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는 오히려 23% 하락세를 보였고 작년 1~10월 중 수출물량은 18.4%가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는 18.4% 하락세를 보였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섬유 등 경공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어 산업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두번째는 부품이나 소재개발 및 기술이 낙후되어 생산 및 수출확대가 오히려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수출확대효과는 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번째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와 저에너지가격정책으로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과거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때는 산업의 논리에 밀려 환경문제는 뒷전이였지만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는 선진국을 필두로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규제 등 세계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무역규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규제 또한 국내 산업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마지막은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활동도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해 자원이용의 총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세계 경제환경과 발전전략

세계 경제환경 변화 전망

선진국을 필두로 한 개방화, 자유화 물결로 인해 점차 국경의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과거 상품의 수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인력, 기업 등 생산요소와 경제주체까지도 급속히 이동하고 있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주도로 각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환경·투자·경쟁 등 국경내 경제질서까지 통일된 규범화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됨과 동시에 각 국가들은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기업 및 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래 유망 산업의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거대한 시장으로 나아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영역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공고히 다지려는 모순된 형태를 띠고 있다.

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촉발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으로 확산된데 이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까지 그 파장이 미쳐 국제 금융거래 증가로 인한 외환·금융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환경의 큰 변화라면 선진국을 필두로 점차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일변도의 발전개념에

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발전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환경규제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과파를 일으키는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후발개도국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과거 국가 경제의 성장원천이 노동력과 자본에 바탕을 두었다면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이나 지식에 바탕한 정보·지식기반 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으로 부상되고 있다.

세계가 단일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의 기준으로 묶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의 논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각국이 요구하는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산업발전비전 -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 전환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그 성장 잠재력은 미미하지만 기술·지식 집약화 산업은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점차 산업의 중요도가 기술·지식집약화로 옮겨가고 있다. 정보통신·신소재·우주항공·문화산업 등은 아직 미개발, 미개척 분야가 많이 남아있어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는

나에 따라 향후 미래의 세계 경제 주체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 경제논리에 의해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인간들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각 국의 규제 등이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저소비형의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은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규모확대보다는 대규모 장치·조립산업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전문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소량·다품종 생산기술의 발전과 지식·정보화를 가속화하여 대기업과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향후 국내 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지식·정보 혁명과 세계경제 통합화의 물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결집하여 세계 일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적의 산업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의 네트워크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수출·성장·고용창출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주도의 산업발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 창출 및 산업효율제고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진출·퇴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만들고 제도적 틀을 갖추는 규범의 제정자(rule-maker)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기능을 보완·활성화하고, 퇴출·합병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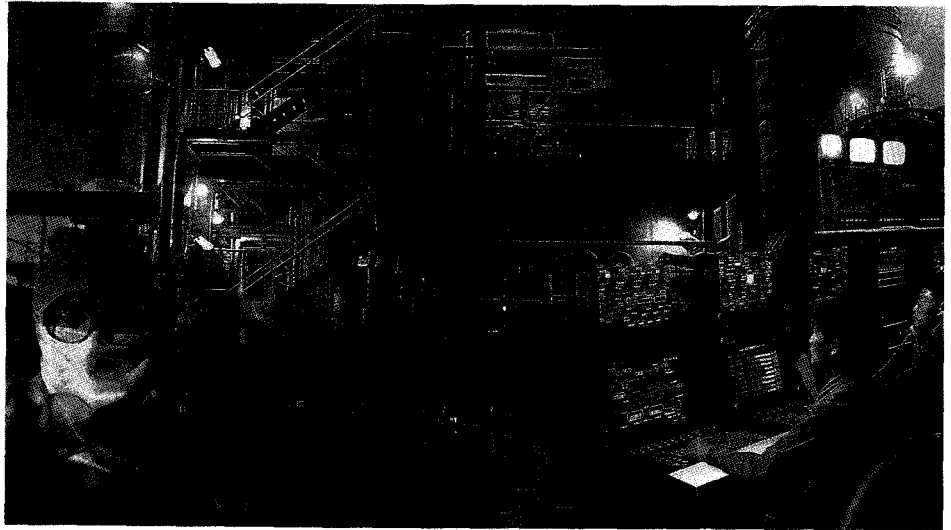
과거 노동·자본 등 투입요소의 확대에 의한 성장단계에서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혁신활동이 성장 및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선진국형 혁신주도 단계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적자본의 축적, 창조적 인적 자원의 육성, 정보인프라의 확충 등 산업의 지식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혀 새로운 분야에만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기술집약산업의 육성을 통해 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친화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최적의 산업활동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 발맞추어 세계 친화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스탠다드의 채용과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산업지원제도 또한 국제규범에 맞추어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역차별제도도 함께 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시정하여 입지, 물류, 인력 등의 분야에서 고비용구조를 개혁하여 산업활동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대비 국내 산업 수준



기술개발투자의 동향

우리나라의 총 기술개발투자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20%이상의 급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R&D투자규모는 GDP대비 2.89%(9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규모면에서 97년 기준으로 128억 달러로 세계 7위에 랭크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비의 절대규모면에서 볼 때 미국의 1/16, 일본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98년 스위스 IM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R&D관련 투자비는 규모면에서 세계 7위, GDP대비 R&D투자는 세계 3위, 총 연구개발인력은 9위, 산업부문 연구개발인력은 8위 등 기술개발투자 자원 측면에서는 분석대상 46개국 중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IMF 한파로 인해 기업경영 애로

요인이 많아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는 전년 대비 10%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잠정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연구소의 71%가 구조조정을 추진중(98년 11월 기준)에 있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감소추세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경쟁력의 국제적 비교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수준이나 특허 출원수는 세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앞서 IMD보고서에서 보듯이 R&D관련 규모는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특허출원도 세계 5위(96년 기준으로 92,734건)에 랭크되어 있으며 최근 10년(1986~1996)동안 미국에서의 특허등록건수는 '82~'86년간 157건에서 '92~'96년은 4,912건으로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분야는 경쟁력있는 곳으로 국내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해외로의 기술수출까지 가능하므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점차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국내의 기술환경은 어떠한가? 국내 기술환경의 경우 기술개발활동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연구시설 중 기술하부구조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인프라의 집적화인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600개나 조성되어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111개나 된다. 이에 비해 국내는 6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금 조성중에 있어 기술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더디고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국내 정보화수준 또한 미국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전산원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을 국가정보화지수('89년~'96년)를 100으로 했을 때 영국·프랑스·독일 그리고 싱가포르 65 그리고 일본은 56에 해당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미래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국내 전체 제조업체 중 상위 20개사의 기술개발투자의 비중이 64%(96년 기준)로 선진

국에 비해 2배나 높아 중소기업과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술개발투자의 대기업편중 현상은 기술, 자금, 인력, 정보 등이 구조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미약한 기술혁신노력으로 귀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전체 중소기업중 기술개발투자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는 8.4%, 기술개발투자는 매출액 대비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조선 등의 생산·제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설계·소재·시스템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요소인 디자인·품질 등의 경쟁력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IMD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디자인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경쟁국인 후발개도국에 비해서도 80~90%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동안 양적인 기술개발투자는 크게 신장되었으나 취약한 기술환경 및 관리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적 수준이 낮아 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 수준(98년 스위스 IMD보고서)으로 경쟁국인 대만(7위), 싱가포르(9위)에 비해 낮게 나타나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대비 국내 품질/가격수준(미국을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싱 가 폴	대 만
품질/가격 (순위)	77 (30위)	106 (1위)	101 (5위)	100 (6위)	96 (10위)	92 (22위)

자료 : 스위스 IMD (1996년)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했을 때 99.1%를 차지하고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69.2%를 기록하는 등 큰 고용이나 생산 등 모든 면을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도표1) 중요도나 비중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열세에 놓여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취약한 재무구조와 만성적인 자금난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1997년 평균부채비율은 418%로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결과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여의치 않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기술경쟁력은 열위에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선진국 기술경쟁력의 45~50%

수준에 불과하여 핵심기술개발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IMF사태와 세계 경제의 혼란 등으로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은 한층 강화되었다. IMF사태로 인해 국내 소비는 극도로 침체되어 이로 인해 공장들의 생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중소기업 또한 그 여파를 실감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은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9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도표2)

이는 국내 내수의 감소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의 연쇄 부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이 점차 줄어들어 그 결과로 판매위축은 물론 수출증가율의 감소 또한 경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표 1>

중소제조업의 비중추이

구 분	1991		1993		1995		1996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 업 체 수 (개)	71,105	98.5	87,913	98.9	95,285	99.0	96,241	99.1
종업원수(천명)	1,853	63.5	1,987	68.9	2,034	68.9	2,006	69.2
생 산 액 (10억원)	91,755	44.6	122,361	47.8	169,785	46.5	187,926	46.8
부가가치(10억원)	39,563	45.8	54,549	50.3	73,808	46.3	82,281	47.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도표 2>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4	1998. 2/4	1998. 10
생산증가율(%)	12.2	9.6	3.3	-1.4	-15.1	-28.1	-39.8

중소기업의 발전전망

세계나 국내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으리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성장으로 짐작컨데, 향후 2010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성장률이 대기업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이 과거 20여년 동안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예상치에 따르면 20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 고용, 수출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0%, 71.6% 그리고 4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도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

향후 그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건설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먼저 IMF지원체제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매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위주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MF와 같은 거대한 물결에도 흔들림없이 이전과 다름없는 경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의 구조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시책과 기술·품질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 기술인력 pool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애로기술에 적합한 전문인력 공급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정부에서는 인수·합병, 사업전환, 대기업 사업이양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고자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 부도,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중소기업 등 인수자금을 융자하여 사업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토록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싼 유휴설비의 사장화를 막기위해 유휴설비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기반 중소기업 집중 육성

정부는 제2차 구조개선사업(1998~2002)을 실시하여 매년 2조원씩을 투입하여 총 2만5천개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래 중점산업이 될 정보통신, 신소재, 첨단정보, 전자,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및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적 생산구조를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전망(제조업부문)〉

(단위 : %)

	1996	1997	1998	2003	2010
부가가치 비중	47.2	47.9	49.0	54.0	56.0
고용 비중	69.2	69.3	69.5	71.6	72.0
수출 비중	41.8	41.8	42.0	48.0	50.0

자료 : 산업연구원

* 이 글은 산업자원부의 공개자료실에 실린 보고서를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